

뽕나무 '오디' 농가 새 소득원

노화억제·당뇨·불면증 등에 효과…웰빙식품 각광

10a당 소득도 쌀보다 높아…전남도 재배농 급증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뽕나무 열매인 오디가 새로운 농가 소득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영광 34.5ha, 장성·순천에서 각각 20ha, 보성 15ha, 화순 10.7ha 등 도내 5개 시·군 145ha에서 뽕나무 오디를 수확했으나 1년 새 245ha(960㏊ 농가)로 늘어났다.

오디는 건강에 좋은 불포화지방산과 기능성 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돼

노화 억제·저혈압·불면증·당뇨·알코올 중독 등에 효과가 있어 소비가 늘고 있다.

가격도 kg당 4천500원~8천원 선에 판매돼 10a(300평)당 순소득이 250~390만원으로 쌀(54만6천원)이나 복분자(264만원)보다 높아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다.

특히 다른 작목에 비해 일손이 적게 들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재배할 수 있다.

그러나 수확기인 5월 하순~6월 중순에 노동력이 대거 필요한 점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 생과(生果) 판매에 그치고 있어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음료나 술, 간편식 등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분장은 최근 오디 수확에 적합한 뽕나무 신품종 '대성뽕', '대자뽕', '대봉뽕'을 개발, 보급에 나섰다.

조영순 전남도 농업기술원 축산특작기술담당은 "산간농지를 이용해 오디뽕 재배면적이 늘고 있다"며 "재배기술 지도와 함께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적정 면적 재배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함평 돌머리 해수욕장 개장

광주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인 함평을 석성리 돌머리 해수욕장이 4일 개장식을 갖고 다음달 24일까지 피서객을 맞는다.

수상부대에서 열리는 이번 개장식은 무사고 기원제에 이어 평양민족예술단 공연, '참숯 뱀장어잡기' 등이 진행된다.

인공 풀장에 그물망을 치고 뱀장을 풀어 맨손으로 잡는 뱀장어 잡기는 오는 13일과 26일, 다음달 3일 등 3차례 열린다.

또 갯벌생물의 생태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갯벌생태학습장도 운영하며 개매기 및 바지락 캐기 등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특히 8천여㎡ 규모의 인공 풀장과 어린이 간이 인공 풀장, 울창한 송림 사이의 원두막 13동과 숙박 텐트촌 20동도 이용할 수 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민선 4기 2년 결산과 과제

■ 조형래 곡성군수

'전국 제1의 친환경농업' 메카 우뚝



의 관광벨트 조성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켰다.

개간 등으로 벌채될 소나무를 활용해 곡성 진입로에서부터 기자마을에 이르는 가로변에 조성한 낙랑장송 등 경관조성사업도 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공디자인의 성공사례로 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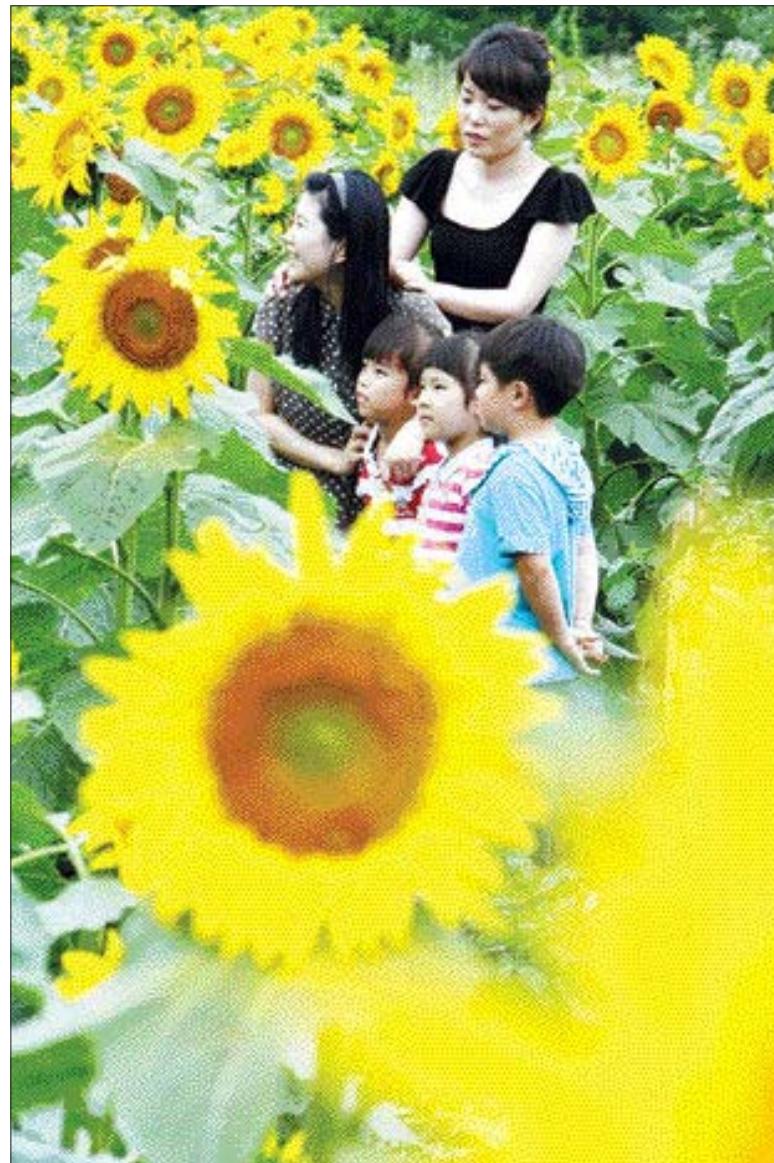
이밖에 곡성 5일시장 이설사업과 곡성 소도읍 육성사업 등으로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효사랑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점도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곡성군은 남은 민선 4기 동안에도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친환경농업 분야에서는 유통사업을 지원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형래 곡성군수는 "모든 성과는 군민과 공직자들이 힘을 합친 결과"라며 "앞으로도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y@

활짝핀 해바라기…동심도 활짝



함평군 해보면 대각리 오두미을을 찾은 어린이들이 교사와 함께 해바라기를 보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경관농업지구인 이곳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해바라기 축제'가 열렸다.

/연합뉴스

화순군 "상복 터졌네" 싱글벙글

한복열·최옥경씨 등 직원들 잇따라 수상

화순군청 공무원들에게 상복이 터졌다.

화순군에 따르면 한복열(행정지원과 서무담당)씨가 지난달 26일 '2007년 전국자치단체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유공 공무원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0일 최옥경(군정발전기획단 홍보담당)씨가 모범공무원으로 국무총리 표창

을 받았고 같은 달 17일에는 문귀동(화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씨가 농촌진흥청이 선발한 스타디오사로 선정됐다.

이밖에 조영균(행정지원과 6급), 문재열(재무과 7급), 양동실(화순읍 6급)씨가 도지사 표창을 받는 등 공무원들이 잇따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상반기 도내 축제 관광객 1천만명"

작년보다 10% 늘어…함평 나비축제 126만명 최다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올 상반기 전남도의 관광객이 지난해 보다 크게 늘었다.

전남도는 3일 "올 상반기 도내에서 치러진 16개 축제에 965만명의 관광객이 몰려 지난해 같은 기간 853만명에 비해 1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남도 축제 중에서 함평 나비·곤충엑스포와 담양 대나무축제, 광양 메화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등 4대 축제에는 100만명 이상이 몰려 '대박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축제별로는 함평 나비·곤충엑스포가 120만명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을 기록한 데 이어 담양대나무축제(120만명), 광양메화축제(110만명),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107만명) 순이었으며, 보성녹차축제·완도장보고축제 등 다른 축제에도 평균 60만명 이상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이를 관광객의 방문으로 입장료와 특산물 판매 등 직접소득으로 168억원을 벌어들이고 주변 관광지 수입 등 간접소득은 5천573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관광객 1인당 5만9천원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거둔 셈이다.

남도 축제의 관광객 유치 성공은 대나무와 나비, 메화, 진도의 바닷길 열린 현상 등 남도만의 자원을 상품화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김주경기자 jjnews@kwangju.co.kr



강진 '도암학교 마을 도서관' 개관

'도서관 사람들' 장서 3천권 기증

강진군 도암면 도암초등학교에 마을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지난 2월 강진군, 강진교육청과 '책 읽는 강진 만들기 사업추진협약'을 한 (사)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대표 김수연은 3월 3번째 도서관인 '도암학교 마을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102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도암초등학교는 기존 도서관의 장서

가 절대 부족해 체계적인 독서교육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사)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은 네이버 등의 후원을 받아 아동 및 성인 도서 3천권을 기증했다.

강진군에서는 방과 후 사서 도우미 인건비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 앞서 독서교육 전문가인 정석희씨의 '왜 하필 책인가'라는 주제의 주민 대상 특강이 열렸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참전 유공자에 '수당'

장성군 지원조례 제정

장성군이 최근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이달부터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과 장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65세 이상 전역 군인이나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장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장성군에 거주하는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 및 경찰은 781명으로 이중 495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규모는 월 2만원의 참전 명예수당과 장제비 20만원으로,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군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Movie Gift

동아리 관광권을 드립니다

SONY 모든 것

한국관광

중고자동차 전자증 매입·판매

수출 세금 대체면제 제도입니다

한국관광

한국관광

한국관광